자동차

Car

연비와 변속기의 방정식?

고단·수동 일수록 기름값 덜 든다

현대차 베라크루즈 변속기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연료 절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의 연비를 높이기 위해선 차량의 무게가 가볍고 힘에 비해 기름을 덜 먹는 엔진을 달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변속기의 경우 '단'의 수에 따라 연비가 좌우다는 점에서 연료 소모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자동변속기의 경우 1990년대까지 소형차에는 3단, 중·대형차에는 4단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소형차 4단, 중대형차 5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변속기의 경우 수동에 비해 연비 자체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고유가 시대를 맞아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현대차 베라크루즈 6단까지 있다

◇**변속기 '단'의 수가 많을수록 연비는 높아져**=변속기 단수가 많아지면 엔진의 힘을 효율적으로 바퀴에 전달할 수 있다. 같은 엔진을 달아도 단수가 많은 변속기를 장착한 차가 가속력이나 연비가 더 좋다. 급경사를 올라갈 때 계단 수가 많으면 힘이 덜 드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중형세단의 경우 현재 시판 중인 현대차 쏘나타와 르노삼성차 SM5는 4단 자동이 들어가고, GM대우 토스카는 5단 자동이 들어간다. 따라서 엔진·차체 등을 제외하고 변속기가 미치는 영향만 따진다면 토스카가 연비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단수가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정밀성이 높은 4단이 부실한 5단보다 좋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단수가 많아질수록 구조가 복잡해져 변속기 자체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쏘나타나 SM5도 조만간 5단 자동으로 바뀌는 등 중형차에도 5단 자동이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토스카는 연내에 기존 5단 대신 6단 자동변속기를 달아 연비를 보다 향상시킬 계획이다. 현재 국산차 중에서는 지난해 출시된 현대차의 대형 SUV 베라크루즈가 유일하게 6단 자동을 달고 있다.

현대차 그랜저도 조만간 5단 자동에서 6단 자동으로 바뀐다. 현대차는 또 장기적으로 후륜구동용 8단 자동변속기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스틱, 고장 적고 수리비도 싸다

◇**국내 운전자 자동변속기 차량 선호 뚜렷**=우리나라 운전자의 '오토(자동변속기)' 선호 경향은 유난하다. 따라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내놓은 차량 가운데 중·대형 차량에서 '스틱(수동변속기)'은 이미 사라졌다. 하지만 오토의 경우 스틱에 비해 연비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국내 운전자들의 스틱차량에 대한 관심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스틱이 옵션으로 달려 있는 차량은 소형차가 대부분이다. 현대차 '베르나'의 지난 2006년 판매실적 1만2천868대 가운데 1만1천727대(91%)가 오토다. 10대 중 1대 만이 스틱을 달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의 '클릭'이나 기아차의 '모닝'도 사정은 비슷한다. 지난해 판매된 7천329대의 '클릭' 가운데 6천299대(86%)가 오토 차량이다. '모닝'도 지난해 판매된 2만346대 가운데 오토가 1만7천895대(88%)에 달한다. 특히 GM대우차의 '마티즈'의 경우 국내 운전자의 오토 선호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경차를 구입한 소비자들 대부분이 오토 옵션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마티즈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85%는 오토를 선택한 반면 스틱은 15%에 그쳤다.

마티즈의 경우 처음 출시된 지난 1997년만 해도 스틱 차량이 오토에 비해 인기가 많았다. 당시 ℓ 당 휘발류 가격은 1천100원대였지만 오토와 스틱 비율은 45.5대 54.5로 스틱이 우세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ℓ 당 1천600원에 육박한 상황에서도 오토의 비중은 되레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 쏘나타

르노삼성 SM5

GM대우 토스카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름값이 높아질수록 '오토 의존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기름값을 제외하더라도 스틱을 사용해야 할 이유는 많다. 우선 기계식인 스틱 차량은 유압식인 오토에 비해 장치가 간단한 만큼 고장이 적고, 수리 비용도 저렴하다. 또 오토는 스틱에 비해 운전하기에는 편하지만 오른발만 자주 사용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다리건강에는 불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기아·현대차 여름 캠프촌 운영

현대차와 기아차가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고객들을 대상으로 '썸머캠프촌'과 '봉수대 오토캠프촌'을 각각 운영한다.

현대차는 오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강원도 횡성의 현대 성우리조트에서 열리는 '2007 현대자동차 썸머캠프' 참가희망자를 모집한다. 참가를 원하는 고객은 현대차 홈페이지(www.hyundai-motor.com)를 통해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아차도 28일부터 8월7일까지 11일간 강원도 고성군 봉수대해수욕장에 오토캠핑장을 운영한다. 오토캠핑장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다음달 23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www.kia.co.kr)에서 기아차를 소유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고객 중 추첨을 통해 1천가족에게 혜택이 주어지며 회차별 200가족씩 각 2박 3일 일정으로 오토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 기름먹는 4敵

기름값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오르면서 운전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할인 혜택, 주유소 적립 포인트 활용, 값싼 주유소 찾아가기 등 '유테크' 정보만 잘 활용해도 기름값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한다. 고유가시대를 맞아 기름값을 줄이는 노하우를 알아보자.

급가속·급정거
트렁크 잡동사니
풀탱크 연료주입
타이어 공기부족

◇**운전 습관부터 고치자**=급가속, 급정거 등 난폭운전은 연료를 '잡아 먹는' 주범이다. 자동차는 가속페달을 급하게 조작하면 많은 연료를 다중 분사한다. 일반적으로 배기량 2천cc 승용차를 기준으로 급출발 한 번에 10cc, 급가속 한 번에 5cc의 기름이 더 소모된다. 고속 주행도 자제해야 한다. 시속 100㎞ 이상이 되면 공기저항으로 인해 80㎞로 주행할 때 보다 연료가 20% 가량 더 든다.

특히 난폭운전은 가속페달의 급한 조작이 누적되면서 엄청난 연료를 소모하게 된다. 또 브레이크 패드나 라이닝도 조기에 마모된다는 점에서 이래저래 경제적 손실이 크다. 불필요한 공회전도 쓸데없이 연료를 소모시키고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삼가해야 한다. 주행 연비가 20% 이상 추가 소요되는 에어컨 사용도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주유카드·기름값 비교 사이트 활용하자**=각 카드회사에 전화를 걸어 정유사별 할인율을 꼼꼼히 따진 후 가장 할인이 많이 되는 카드를 만들자. 주유카드만 잘 이용해도 ℓ 당 30원에서 70원을 아낄 수 있다.

◇**차 무게 줄이고 타이어 공기압 체크해야**=차를 가볍게 하는 것도 연료 소모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쓸데없는 짐은 연료를 추가적으로 소모하게 하는 주범이다.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물건들은 따로 보관토록 한다. 기름도 반드시 필요한 양만큼만 넣는 것이 좋다. 연료탱크가 55ℓ 짜리인 중형차라면 연료를 꽉 채웠을 때보다 6~10ℓ 정도만 넣으면 무게를 35~38㎏ 가량 줄일 수 있다.

낮은 타이어 압력도 연료 소모의 적이다. 타이어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타이어 접지부에 부하가 많이 걸려 연료 소모가 훨씬 많다. 점화플러그나 고압 케이블 등도 2만㎞마다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교환하는 게 좋다.

소모품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차량유지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연소실에 들어가는 공기를 정화하는 공기청정기는 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연료소모를 최소화시켜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다. 공기청정기는 엔진오일 교환 전에 가급적 1회 이상 청소해 주는 것이 좋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